

〈믿음의 역사〉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0/1(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1-3

1.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간략하게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네가지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전이 되는 법칙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네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① 바라봄의 법칙, ② 말씀, ③ 모험, ④ 언어

개인적으로 위의 네가지 법칙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는 법칙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이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는 것(예, “저는 0번 00의 법칙이요”)이 아니라, 그 답변을 선택하게 된 이유나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도전이 되었는지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 내용이 이 네가지 법칙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목원들의 생각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눔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면, 목자가 먼저 나눔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오늘 말씀 중에,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은 아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믿음’에 대한 정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믿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비로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받침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